



##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[안내] 불법음란 합성물 예방을 위한 홍보 협조 요청

1. 관련: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-2362
2.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**디지털 성범죄(불법 음란 합성물 제작·유포 등) 예방을 위해 불임과 같이 예방·홍보 카드 뉴스를 제작**하였습니다.
3. 이에 각급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홈페이지 및 학급 게시판 게시, 학부모 알리미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불임 카드뉴스 5종 1부. 끝.

##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

수신자 교육지원청교육장, 공사국립초중고특수학교장

주무관

학생생활교육담당

민주시민교육과장

협조자

시행 민주시민교육과-11861 ( 2024. 7. 25. ) 접수 한솔초등학교-8177 ( 2024. 7. 25. )

우 5506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(효자동2가, / <https://www.jbe.go.kr>  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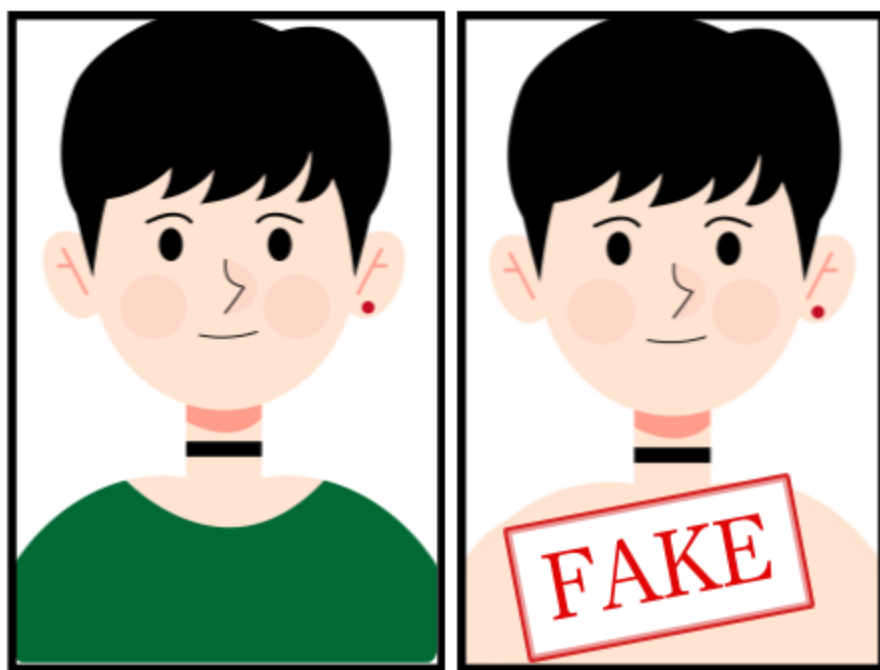
전화 063-239-3470 /전송 063-220-9413 /mir1597@naver.com / 공개

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



**잠깐 !**

# **불법음란합성물이란?**



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 
사진 또는 영상을  
**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**을  
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 
합성한 것

**불법음란합성물 제작·유포 행위  
모두 강력 처벌 받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.**



#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
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

## 제작

5년이하 징역,  
5천만원 이하 벌금

## 유포

5년이하 징역,  
5천만원 이하 벌금

## 금전 취득

7년이하 징역,  
5천만원 이하 벌금

## 상습 범행

2분의 1까지  
가중처벌



# 실제 피해 처벌 사례

서울신문

딥페이크로 친구교사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...중학생들 경찰 조사 중

입력: 2024-06-21 16:25 | 수정: 2024-06-21 16:57

경향신문

중학교까지 파고든 '딥페이크 음란물'...동급생·교사 피해

김정호 선임기자 chin@kyunghyang.com  
2024.06.21 16:32 입력 | 2024.06.21 16:58 수정



경찰 마크, 경향신문 자료사진

▲ 사  
딥페이크 기술이  
들이 경찰 조사

전북경찰청 동  
생들을 조사

전북 전주 오 중학교 남학생들이 교사나 동급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에 유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.  
A 군 등은 지  
성하고 유포

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(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
위반)로 오 중학교 학생 A 군 등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.

A 군 등은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나 학급단체 사진 등에서 교사나 동급생의 얼굴로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  
어 유묘한 혐의다. 다만 해당 사진은 외부로 유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

이들은 SNS에 사진을 올리고, 친구들끼리 공유하며, 학교 게시판에 붙여놓는 등 유묘한 혐의다.

친구들과 선생님 사진을  
무단으로 **합성**하여 **유포**

"타인의 성적 자유권과  
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!"

- 제작 유포혐의로 검찰 송치(**형사처벌**)
- 학교 **강제 전학** 조치

강력하게 처벌 받는 **디지털성범죄** 입니다.

재미로 만든 건데 죄가 되나요? 🙄



친구가 보여줘서 본거예요!

피해를 당해 너무 고통스러워요. 🙄



장난삼아 만든 **합성물**

피해자는 평생 **상처**





# 피해 신고는?

범죄 신고



**긴급 전화 : 112**



성폭력 상담



**전주성폭력상담소**  
**063)717-1366**